

1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2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윤동주 하숙집-윤동주문학관-서시 시비

3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여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 시비-김수영문학관

4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성북예술창작터-최순우 옛집-조지훈 옛집-성북선잠박물관(판소리 공연)-수연산방-심우장-길상사
*어연경 명창의 판소리 한마당

5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 생가터-관광공사 서울센터-광통교-관철동과 우미관 터-베를린광장-전태일 기념관-다시세운상가

6 신동엽의 종로5가

돈암동 옛 책방 및 집 터-성북천-낙산-창신동 봉제거리-동대문-종로5가

7 박인환의 세월이가면

교보 앞 처가집 터-낙원동 책방 마리서사 터-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8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독바위역-이호철길-이호철 집(불광 미성아파트)-불광동 성당-서울혁신파크-양천리 비석

9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 백화점-포스트 타워(옛 중앙우체국)-유네스코 회관-명동예술극장-아시아 미디어센터
(옛 수도극장, 스키라극장)-종로 타워(옛 화신백화점)-체신기념관-원서공원

10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고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

11 손창섭의 길

문학의집 서울-외교구락부 터-남산케이블카 승강장-회현 제2시범아파트-회현 사랑채-회현동 호텔촌-회현동 은행나무

12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효제 초등학교-낙산 공원-예술가의 집-한무숙 문학관

13 최인훈의 구보씨의 하루

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돌담길-광화문 지하보도-청진동-관훈동-운현궁

14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청운문학도서관-시인의 언덕-무계원-현진건 집터-백사실계곡

15 정비석의 자유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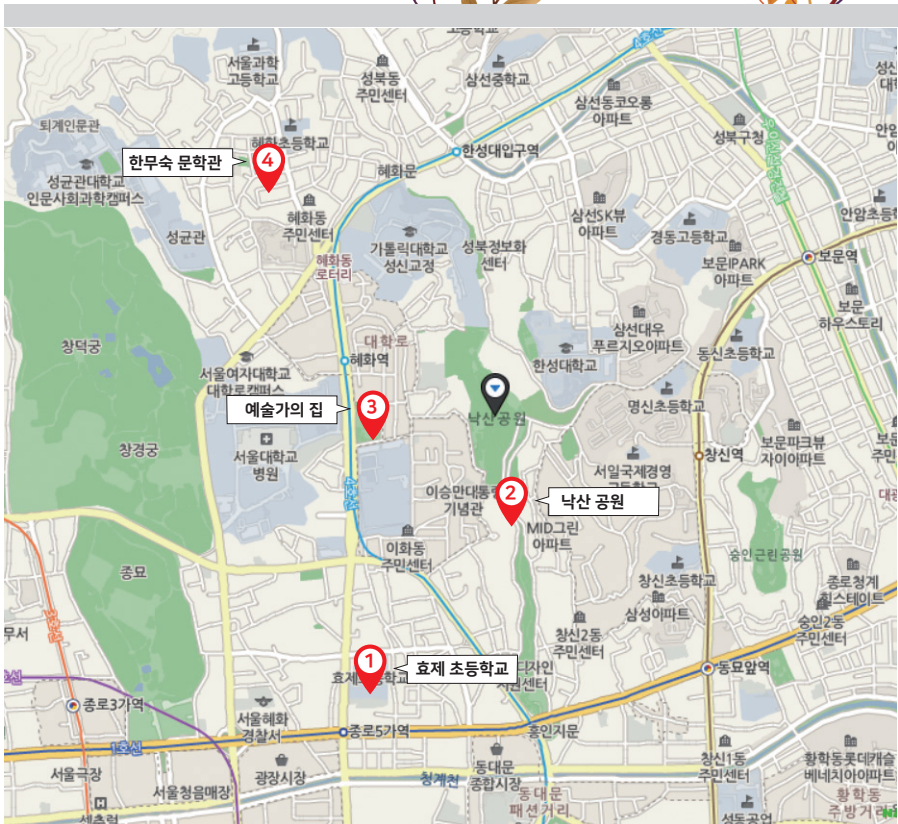
세종로-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을지로입구(옛 아서원)-덕수궁(영성문)

16 손장순의 한국인

안국역-건국준비위원회 옛터-정독도서관-국무총리공관-청와대 무궁화동산관

코스 순서

- ① 효제 초등학교
- ② 낙산 공원
- ③ 예술가의 집
- ④ 한무숙 문학관



▶ 일 정 표

회 차	일 정	주 제	코 스	해 설	신청일
1	6/12 (수) 10시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이경철	6/3
2	6/19 (수) 10시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윤동주 하숙집-수성동 계곡-윤동주문학관	방민호	6/10
3	6/29 (토) 14시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익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김수영문학관	진은경	6/17
4	7/3 (수) 10시	백석의 흰당나귀	최순우옛집-조지훈옛집(방우산장)-선잠박물관(판소리공연)-이태준옛집(수연산방)-심우장-박태원집터-길상사	박미산	6/24
5	8/31(토) 18시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 생가터-관광공사 서울센터-광동교-관철동과 우미관 터-베를린광장-전태일 기념관-다시세운상가	황미선 신수경	8/19
6	9/4 (수) 10시	신동엽의 종로5가	돈암동 옛 책방 및 집 터-성북천-낙산-창신동 봉제거리-동대문-종로5가	박미산	8/26
7	9/14 (토) 14시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	교보 앞 차가집 터-원룸 책방 마리서사 터-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맹문재	9/2
8	9/25 (수) 10시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독버우역-이호철길-이호철 집(불광 미성아파트)-불광동 성당-서울혁신파크-양천리 비석	권해상	9/16
9	10/5 (토) 14시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백화점-포스트타워(옛 중앙우체국)-유네스코회관-명동예술극장-아시아 미디어센터(옛 수도 극장)-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체신기념관-원서공원	박정아	9/23
10	10/12 (토) 14시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등학교	김미선	9/30
11	10/23 (수) 10시	손창섭의 길	남산 문학의 집 서울-외교구락부 터-남산케이불가 승강장-회현 제2시범아파트-회현 사랑채-회현동 호텔촌-회현동 은행나무	한이수	10/14
12	10/30 (수) 10시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효제초등학교-낙산공원-예술가의 집-한무숙문학관	전혜경	10/21
13	11/6 (수) 10시	최인훈의 구보씨의 하루	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돌담길-광화문 지하 보도-청진동-관훈동-윤현궁	최서향	10/28
14	11/16 (토) 14시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청운문화도서관-시인의 연극-무계원-현진건 집터-백사실계곡	이지현	11/4
15	11/20 (수) 10시	정비석의 자유부인	세종로-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을지로입구(옛 아서원)-덕수궁(영성문)	강영진	11/11
16	11/30 (토) 14시	손장순의 한국인	안국역-건국준비위원회 옛터-정독도서관-국무총리공관-청와대 무궁화동산	심흥식	11/18

▶ 연보 및 작가 소개

연보

▶ 1908년 10월 13일

낙산 기슭에서 태어남, 본명은 임인식

▶ 1921년(14세)

보성 중학 진학

▶ 1925년(18세)

보성중학 중퇴하고 가출

▶ 1926년(19세)

시와 수필 등을 〈매일 신보〉와 〈조선 일보〉에 발표하기 시작

▶ 1927년(20세)

임화(林和)라는 필명 사용하기 시작, 카프(KAPF: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가입, 중앙 위원이 됨

▶ 1928년(21세)

영화 〈유랑〉, 〈혼가〉 등의 주연 배우 맡음

▶ 1929년(22세)

〈네거리의 순이〉, 〈우리 오빠와 화로〉등 작품 발표
영화 공부 하러 일본으로 감

▶ 1930년(23세)

무산자사(無產者社)에서 이복만, 김남천 김두용 등과 활동

▶ 1931년(24세)

귀국, 이북만의 여동생 이귀례와 결혼, 카프 일차 검거로 투옥

▶ 1932년(25세)

카프 서기장이 됨, 카프 기관지 <집단>의 편집 맡았으나 발간은 하지 못함

▶ 1934년(27세)

카프 2차 검거가 일어났으며 폐결핵으로 검거 모면, 이귀례와 헤어짐

▶ 1935년(28세)

경기도 경찰부에 카프 해산계 제출, 지하련(본명 이현욱)과 재혼
<조선중앙일보>에 '다시 네거리에서' 발표

▶ 1938년(31세)

첫 시집 <현해탄> 발간

▶ 1940년(33세)

<조선문학 연구의 과제>발표, 고려영화사 문예부 촉탁(~1942년)
평론집 <문학의 논리> 발간

▶ 1943년(36세)

조선영화문화연구소 촉탁(~1944년)

▶ 1945년(38세)

조선문학건설본부 서기장,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

▶ 1947년(40세)

제 2시집 <찬가> 발간, <회상시집>발간, 월북
'9월 12일-1945년, 또 다시 네거리에서' 발표

▶ 1950년(43세)

6.25전쟁 참전, 조선문화총동맹 부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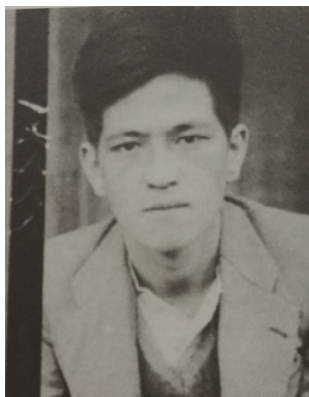
▶ 1951년(44세)

시집 <너 어느 곳에 있느냐>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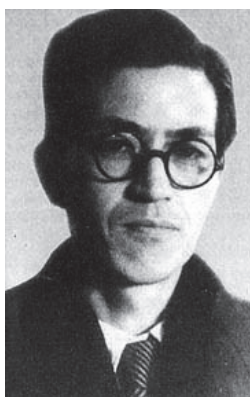
▶ 1953년(46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전복 음모와 반국가적 간첩테러 및 선전선동 행위에 대한
사건으로 체포돼 사형

작가 소개



1931년 임화



1951년 임화



김복진이 그린 소묘

임화(1908~1953) 본명은 임인식(林仁植)이고 서울에서 출생했다. 문필 활동을 시작했던 1926년에는 성아(星兒)라는 필명을, 1928년부터는 임화·김철우·쌍수대인·청로 등의 필명을 썼다.

1921년 보성중학에 입학하였다가 1925년에 중퇴하였다. 보성고 동기로는 이상, 이강국, 이현구 등이 있었고, 1년 후배는 조중근, 윤기정, 김기림 등이 있었다. 이강국은 임화가 숙청당했을 당시에 남로당파로 몰려 같이 숙청을 당하였고, 조중근과 윤기정은 카프 시절의 동지였다.

이 당시 임화는 문학에 흥미를 느껴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보성중학을 중퇴하고 잡지 등을 통해 마르크스의 이름을 알게 되고 무라야바 도모요시의 「금일의 예술과 명일의 예술」을 읽고 이에 열광하여 낡은 감상풍의 시를 버리고 다다풍의 시를 실험하였다고 후일 「어떤 청년의 참회」를 통해 스스로 밝혔다. 임화의 이런 행적은 정치적이거나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의 영혼의 갈증이 세속적인 여러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인 1926년에는 매일신보에 「무엇 찾니」, 「서정소시」, 「향수」 등의 시를 발표했다. 1926년부터 시와 평론을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영화와 연극에도 뛰어들었다.

특히 윤기정은 집을 나와 방황하던 고독한 임화에게 형 같이 다정했다. 윤기정과 가까이 하면서 박영희를 알게 되고 카프(KAPF: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에 가입하였다. 이때부터 영화, 연극 등의 배우로도 활동했다. 1928년에 조선영화예술협회의 1호 작품인 이중명 원작, 김영팔 각색의 영화소설 〈유랑〉을 김유영 감독, 임화 주연으로 제작했는데 여기서 주연을 맡았다. 이 영화는 4월 1일 단성사에서 개봉했는데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필름은 남아 있지 않지만 현재 기록으로 남아 있는 임화의 작품은 〈유랑〉과 〈혼가〉이다. 임화의 친구 윤기정은 〈혼가〉에서 마부로 분장한 임화를 두고, 뜨거운 태양열을 쏘이고 다니는 마부의 얼굴이라 하기에는 임화의 낯빛은 너무 희고 창백했다고 말했다. 임화의 수려한 외모 덕에 ‘조선의 발렌티노’로 불리기도 했다.

임화는 김기진, 송영, 김영팔, 최서해, 최승일, 박팔양, 이기영, 안석영 등 카프 맹원들과 친교를 맺고 카프(KAPF) 중앙 위원에 피선되어 프로문학운동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1929년에는 「우리 오빠와 화로」·「네거리의 순이(順伊)」·「어머니」·「병감에서 죽은 녀석」·「우산받은 ‘요꼬하마’의 부두」 등의 시를 써냄으로써 일약 대표적인 프로 시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1931년 동경유학시절 ‘무산자파’이던 김남천, 권환, 안막 등 소장파의 지지를 얻어 카프의 분열을 수습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카프 중앙위원이 되었다. 1934년은 지병인 폐결핵 치료에 주력하던 때이다. 임화는 카프 2차 검거 사건 때 체포되어 전주 감옥으로 이송될 찰나 서울역 앞에서 지병이던 폐결핵으로 졸도한다. 카프 맹원 대부분이 기소되었지만, 임화는 감옥을 가는 대신 마산에서 요양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해에 김남천, 김기진과 함께 카프 해산계를 제출했다.

1936년에는 「해협의 로맨티시즘」 발표하고 1938년에는 처녀시집 현해탄 발간했다. 폐결핵 치료차 마산에서 지내던 임화는 1937년 마산에서 상경한다. 그리고 서울로 와서 영화인 최남주의 출자로 도서출판 학예사를 주관하게 된다.

1945년 38세 되던 해에는 ‘조선문학건설본부’ 조직하고 해방이 되자마자 ‘문학건설본부’의 간판을 내걸고 많은 문인들을 규합하였다. 1946년에는 ‘조선문학가동맹’ 주최의 제1차 ‘전국문학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1947년 8월 12일, 새벽 좌파에 대한 대 검거령 이후 더 이상 남한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하다 판단한 임화는 박헌영을 따라 이원조가 있던 해주로 월북했다. 11월 20일 월북 후 김남천 등과 해주 제1인쇄소에서 남로당 문화담당자로 근무했다.

6·25 전쟁이 나자 다시 서울로 와 '조선문화총동맹'을 조직하고 부위원장을 맡았다. 다시 문화공작대의 일원으로 낙동강 전선에 종군한 뒤, 9월 인민군 퇴각과 함께 자강도로 후퇴한 후 다시 북으로 갔다.

1953년 휴전 직후 8월에 남로당 중심인물들과 함께 북한정권의 최고재판소 군사재판부에서 '미제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당하였다.

이후 북한에서는 임화의 모든 문학기록이 삭제되어 조선문학예술사전 및 북한문학사에서 제외되었으며 반동작가, 미제 간첩이라는 평가만이 남았다. 남한에서도 월북 작가로 그의 작품을 읽을 수 없었다.

1988년이 되어서야 120여명의 월북(남북)문인 작품이 해제되었는데 임화의 저작물이 해금되었다. 임화는 생전에 80편에 가까운 시와 200편이 넘는 평론을 쓴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한국 현대시사와 비평사 그리고 현대문학연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작가 김훈은 2001년 동인문학상 수상소감에서 임화를 떠올리며 '그는 정치범으로서 처형되었지만, 시인으로서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화가 광복직후 문화예술단체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 작품 세계



〈안석영이 그린 임화〉

임화(林仁植)는 평론가로서 문예 이론과 문학사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시인으로서도 우리 문학사에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임화가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거의 문화적 전반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다.

임화는 문학과 미술의 관련성을 깊이 연구하여 오랫동안 카프와 조선문학가 동맹의 미술부 소속이었다. 또한 영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편의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했고 ‘조선의 발렌티노’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 말기에는 고려영화사 문예부 촉탁으로 있으면서 「조선영화연감」과 「조선영화발달사」를 편집하기도 했다.

문학의 출발선

그럼에도 임화의 업적 가운데 가장 빛나는 부분은 역시 시창작과 비평행위를 포괄하는 문학 활동일 것이다. 임화 문학의 출발점을 이루는 것은 한마디로 새로운 것에 대한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후에 자신의 문학적 생애를 회고하면서 쓴 글을 읽으면 이점이 더욱 뚜렷하다.

열아홉 살 때 가정의 파탄과 더불어 그의 평화한 감상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는 전혀 입학시험 준비를 위하여 독실히 공부하던 영어와 물리학과 더불어 중학교를 졸업 직전에 이별했습니다. 하나 그는 학업의 폐지를 조금도 슬퍼도 섭섭히도 생각하지 않았습다. 그는 무모하게도 교과서를 팔아 그때 유행하던 조터모를 사 쓰고 본정에 가서 『개조』라는 잡지 일책과 크로포트킨의 저서 일책을 사가지고 의기현양회 집으로 돌아와 양친께 그 뜻을 말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고함』 이람 소책자를 읽고 몹시 감동되었습니다. 『개조』와 『중앙공론』의 고본을 자주 사들여 福田徳三이란 이의 논문 속에서 리카야도 란 이름과 더불어 미르크스와 엥겔스란 이름을 알았습니다. (중략)

그동안 高橋新吉이란 이의 시집을 사 읽고 어느 틈에 다다이즘이란 말을 배웠습니다. 一氏義良이란 이의 『미래파 연구』란 책, 外의 알렉세이 깡이란 이의 『구성주의 예술론』, 표현파 작가, 『카레의 시민』과 더불어 로만 롤랑을 특히 민중극장론과 『愛와 死의 회몽』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 임화, 『어떤 청년의 참회』, 『문장』, 1940.2. 22-23쪽

위의 글에서 보면 새것에 대한 관심이 잘 표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이 관심은 먼저 기존의 권위나 관습, 제도에 대한 강한 부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를 팔아버렸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고 있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언급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와 함께 신흥예술에 대한 호기심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당시의 임화에게는 일본에서 나온 잡지를 통하여 접하게 된 마르크스나 엥겔스도 새로운 것의 하나였을 뿐이다.

그런데 임화의 신흥예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위주의에 대한 관심이 처음부터 분명

한 방향을 보인 것은 아니다.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을 때 임화에게 새로운 것으로 비친 것은 근대적인 것이었다. 그의 최초의 비평글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문학상에 나타난 연애-연애와 문예의 친구」(1926)는 근대적인 성격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극에서 연애를 다루는 방식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입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외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그 이후의 근대극에 서는 인간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애를 취급했다.

즉 과거에는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내적 번뇌나 갈등을 피하고 그들 이외에 외부적 조건이 사랑하는 그들을 방해한다는 것으로 주제를 삼았고, 근대극에 있어서는 연인간의 내심의 번뇌와 의혹 등 내적 조건이 주제가 되어있는 것이다.

- 임화, 「근대문학상에 나타난 연애」, 『매일신보』, 1926

이와 같이 근대극이 시각상의 전환을 가져온 것은 근대의 개인주의적 경향의 반영이기 때문에 임화는 “적어도 셰익스피어의 민중예술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미래에 일어날 민중예술은 그 기초를 각인의 내부생활에서 구해야” 한다면서 이 점을 ‘민중예술을 제창하는 이들이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문제점이 있는데 인간의 외부 즉 사회현실과 내면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근대극의 기준을 설정하는 소박한 문제의식이 눈에 띈다.

이러한 임화의 근대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자신의 주위의 것과 다른 것에 대한 일종의 호기심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문학으로의 전환

임화는 1926년 <매일신보>에 시 <무엇 찾니>·<서정소시 抒情小詩> 등을 발표해 문단에 나왔다. 초기에는 사회적·예술적 전통을 부정하고 반이성·반예술을 내세우는 다다이즘에 열중하는 듯했으나, 1926년말 KAPF에 가입하면서 계급문학론으로 옮겨갔다. 당시

KAPF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무정부주의 문학론과의 논쟁에 참여한 것은 그가 계급문학론으로 전향했음을 입증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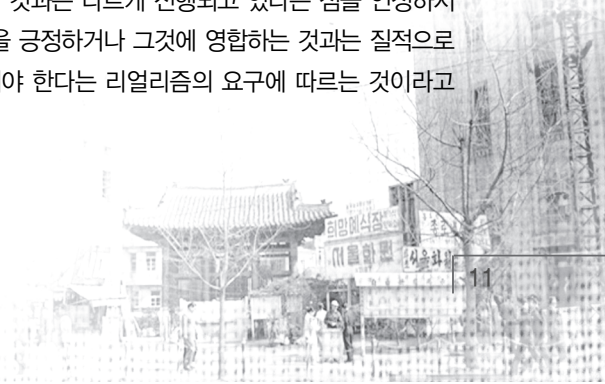
프롤레타리아문학으로 방향을 바꾼 후 임화의 문학론 성격은 극단적인 양상을 보인다. 한마디로 예술을 정치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정치주의가 그의 문학론을 성격 짓고 있다. 당시를 휩쓸었던 정치주의는 임화에게만 한정된 성격은 아니었다. 카프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문학가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던 문제점이기도하다.

1929년에는 시 〈네거리의 순이〉(조선지광, 1929)·〈우리 오빠와 화로〉(조선지광, 1929) 등의 '단편서사시'를 발표하여 대표적인 프롤레타리아 시인의 자리를 굳혔다.

「네거리의 순이」, 「우리 오빠와 화로」같은 '단편서사시'는 카프 시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이전의 생경하고 구호화된 시에서 벗어나서 문학성과 정치성,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얼리즘 창작법

임화는 카프가 해산되고 난 뒤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한 바탕위에서 그 패배한 주체를 재건하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해결책으로 제출한 것이 바로 리얼리즘의 창작방법이다. 그는 이것을 통하여 현실을 재인식하고 사상을 주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방법은 성공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리얼리즘의 창작방법과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진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파시즘 체제가 강화됨으로써 현실에 대한 주체의적·적극적인 개입이 점점 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화는 대략 1938년 후반부터 현실이 마르크스주의 이념에서 주장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현실을 긍정하거나 그것에 영합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오히려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리얼리즘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 비평

그가 문학비평에 참여하게 된 것은 김기진의 <대중화론>(동아일보, 1929)에 대하여 쓴 <탁류에 항하여>(조선지광, 1929)가 출발점이다. 이후 <김기진군에게 답하는>(조선지광, 1929)을 발표해 김기진의 대중화론은 투쟁정신을 제거한 타협주의라고 비판했다.

1934년에는 낭만주의론을 발표해 KAPF 내부의 우익적 일탈과 객관주의적 편향을 비판했으며, 이듬해 KAPF가 해산되어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위기에 처하자 프로 문학의 발생 및 발전 과정에 대한 문학사 서술에 관심을 갖고 <조선신문학사론 서설>(조선중앙일보, 1935. 10. 9~11. 3)을 발표했다.

1938년에는 프로 문학이 퇴조한 이후의 한국문학의 경향을 세태소설과 내성소설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본격소설론을 제기해 사실주의론을 구체화시켰다. 그가 당시 수준 높은 사실주의론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러한 이론적 노력이 바탕이 되었으며, 그의 사실주의론은 세계관과 방법의 변증법적 연관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서 근대문예비평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첫 시집 현해탄과 두 번째 시집 창가〉

임화의 ‘깃발’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 동맹을 이끈 논객이고, 시인이자 영화배우였던 임화(1908~1953). 그는 1908년 서울의 중산촌 가정에서 태어나 보성고보를 다니다가 가세가 기울자 중퇴한 뒤 문학과 영화에 홀렸으며, 톨스토이·고리키·투르게네프 같은 러시아 문학에 심취했다. 이 ‘모던 보이’는 카프를 이끌던 박영희를 따르면서 이전과 다른 전위(前衛)의 삶으로 건너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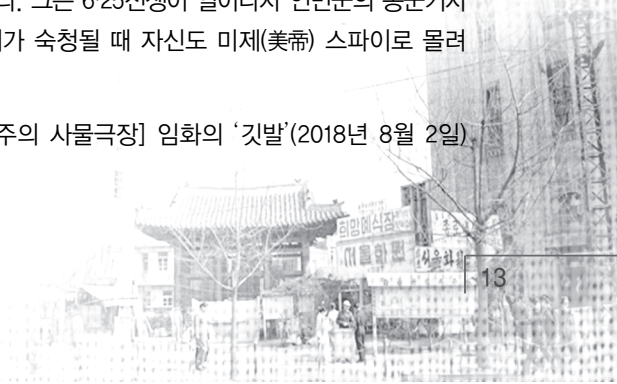
임화는 해방 공간에서 ‘가난한 동포의/주머니를 노리는/외국 상관(商館)의/높은 종들이/광목과 통조림의/밀매를 의논하는/폐 왕궁의/상표를 위하여/우리는 머리 우에/국기를 날릴/필요가 없다!’라고 썼다.

‘더러운 하늘에 무슨 깃발이냐’라면서 ‘동포여 일제히 깃발을 내리자’라고 선동했다. 유치환의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흐르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나 ‘백로처럼 날개를 펴고’ 나부끼는 깃발과는 다른 임화의 깃발은 이념의 깃발, 해방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다.

임화는 ‘네거리의 순이’, ‘우리 오빠의 화로’ 같은 시를 쓰고, 카프의 가면을 쓰고 대중에 부르주아 사상을 전파하려고 부화뇌동하는 문인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하며 카프 중앙위원에 진출했다. 박영희의 도움을 받아 도일(渡日)해서 카프 도쿄지부와 ‘무산자사(無產者社)’를 이끌었다. 1931년에 서울로 돌아와 카프 조직을 이끌었지만 카프 조직원 1차 검거 때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들어갔다. 카프 맹원 2차 검거 때 자진해서 해산계를 내고 카프는 와해되었다.

해방 무렵 노사 쟁의 현장에서 울려 퍼진 투쟁가들이 임화가 작사하고, 김순남이 작곡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47년 11월, 남로당의 우두머리 박헌영을 따라 월북하면서 그의 운명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그는 6·25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의 종군기자로 낙동강까지 내려왔는데, 곧 남로당계가 숙청될 때 자신도 미제(美帝) 스파이로 몰려 처형될 운명인 것은 몰랐으리라.

[장석주의 사물극장] 임화의 ‘깃발’(2018년 8월 2일)



임화와 지하련

임화의 첫 결혼 상대는 카프 동지인 이북만의 누이 이귀례였다. 이북만은 박영희가 카프 서기장으로 있던 시절에 카프 도쿄지부장이었다. 임화가 박영희 집을 쫓기듯 나와 도쿄 유학을 갔을 때, 이북만은 아내와 누이동생을 데리고 가난한 신집살림을 하고 있었다. 임화는 그 집 식객 노릇을 하면서 이귀례를 처음 만났다. 단편 서사시 「우리 오빠와 화로」에서 그가 열망했던 것처럼, 임화는 이귀례를 만나면서 “노동투사를 애인으로 가진 누이를 돌보는 오빠 노릇”을 비로소 할 수 있었다.

둘 사이에 딸 헤란이가 태어났지만, 결국 이혼에 이른다. 지하련(池河蓮)은 그가 1932년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마산으로 요양 갔을 때 만났다. 지하련은 1912년 경남 거창 출생으로 본명은 이현욱(李現郁)이다. 천석지기 집안의 여러 남매 중에 고명딸로서 어릴 적엔 마산에서 성장했다고 알려진다. 당대의 유명 작가이자 프로 문학의 대표적 논객이기도 했던 임화의 두 번째 아내가 된다. 임화는 ‘내 애인의 면영’이란 수필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데 결혼 전 연애했던 지하련에 대해 쓴 글이라고 볼 수 있다.



1930년대의 임화와 임화의 두 번째 부인 지하련

나의 애인은 역시 아름답습니다. 옷에 까만 외투를 입고 조그만 발에는 아담한 구두를 신었습니다. 이따금 버선 위에 고무신을 바꿔 신으면 짧은 발에 흰 발등이 살쾅 비둘기 가슴처럼 포동포동합니다. 나는 그의 귀여운 발이 멀리 갔다가 나의 집 처마 아래 참새 처럼 찾아 드는 고운 걸음걸이를 한량없이 사랑합니다.

트로이의 성문처럼 굳게 닫힌 두 입술 사이에 미소가 휘파람처럼 셀 때 까만 두 눈은 별같이 빛납니다. 아무도 이 아름다운 입이 총구처럼 동그래져서 쏘아 놓는 날카로운 비판의 언어를 상상치는 못할 것입니다. 그 순간 무른 서리가 어린 긴 눈썹 아래 동그란 눈알의 매운 의미를 알아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학력은 일본에서 여학교, 동경경제전문학교 수학했다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녀의 삶은 임화를 만남으로써 크게 바뀌게 되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하련의 모습 또한 임화와의 결혼 이후의 그것이다. 지하련과 임화의 만남은 국립 결핵 요양소가 있던 마산에서 이루어졌다. 1935년 폐결핵 치료차 마산에 내려와 있던 임화를 마산에서 만남으로써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지하련은 1940년 단편 「결별」이 백철의 추천으로 『문장』(1940)지에 발표됨으로써 문단에 데뷔하게 된다. 추천사에서 백철은 그녀를 두고 “지하련씨는 모 친우의 부인되는 분으로 내가 기왕부터 경애해온 분이다. 인간적으로 전부터 친숙하게 아는 분이지만 그가 이처럼 훌륭한 작가적인 천품을 갖춘 분인 줄은 조홀하게도 생각질 못했다. 그만치 이 「결별」을 읽었을 때의 나의 놀람과 기쁨은 더 한층 크고 신선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후 지하련이 작가로서 활동한 기간은 매우 짧은 것이었지만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몇 편의 작품을 내놓았다. 그 작품 세계가 갖는 특징은 여성작가의 의식을 잘 부각시키는 섬세한 문체와 심리묘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녀의 작품들은 젊은 남녀의 내적인 갈등을 성공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하련의 작품 가운데서, 해방 이후에 발표한 「도정」은 여성작가의 위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해방 직후 남편 임화와 함께 조선문학가동맹에 참여하였으며, 1947년 가을 임화와 함께 월북하였다. 지하련의 이후 행적은 임화의 북한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조금 알려져 있는 형편이다.

당시 그녀는 피난지 만주에 머물고 있었는데, 휴전 직후인 1950년 8월 남로당 숙청 과정에서 임화가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평양으로 달려온다. 남편 임화의 시체도 찾을 길이 없었던 지하련은 광인처럼 평양 시내를 헤매고 다녔다고 한다. 그 뒤 그녀는 평안북도 희천 근처에 있는 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1960년에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가 지하련이 남긴 작품으로는 「결별」, 「대향초」, 「가을」, 「산길」, 「도정(道程)」, 「광나루」가 있으며, 월북을 전후한 무렵에 서울에서 출판한 작품집 『도정』(백양당, 1948) 등이 있다.

▶ 임화와 종로

임화는 역사적·운명적 순간 내지는 결단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종로 네거리’에 세우고 과거-현재-미래를 성찰하며 삶과 문학의 방향을 가늠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네거리의 順伊」, 「다시 네거리에서」, 「9월 12일-1945년, 또다시 네거리에서」이다. 임화는 「네거리의 순이」를 통해 명실 공히 대표적 ‘프로 시인’으로 등재되었고, 「다시 네거리에서」를 쓸 무렵에는 카프 해산과 건강 악화, 이혼과 재혼 등으로 생의 전환기를 맞고 있었다. 「9월 12일-1945년, 또다시 네거리에서」는 조선인민공화국 수립과 조선공산당 재건 축하 시가행진이 있던 날의 감격과 성찰을 통해 역사적 새 국면을 조망하며 쓴 시다.

보성고보생 임화는 1925년 졸업을 얼마 앞두고 학교를 자퇴할 때까지 5년 동안 매일 종로를 통해 등하교하였다. 그가 낙산의 집에서 보성고보를 가려면 종로통을 걸어, 탑골공원을 거쳐, 종로 네거리에서 우회전 하여 공평동 견지동 쪽으로 등교를 했을 것이다. 호기심 많은 소년 임화는 종로 일대를 배경으로 성장했다. 그에게 ‘종로 네거리’는 은유나 표상이기 이전에 생활 체험의 장소이자 신체의 일부였다.



〈낙산에서 보성고보까지 임화의 등하교길〉

오오 그림은 내 고향의 거리여! 여기는 종로 네거리

나는 왔다 멀리 낙산 밋 오막사리를 나와 오죽 네가 네가 보고싶은 마음에...

— 임화, 다시 네거리에서 일부

소년시절부터 청년기까지 임화에게 종로는 시간과 장소, 운동성으로 교직된 구체적 사건들의 총합이었다. 그가 종로 복판의 보성고등보통학교를 다닌 1921년~1925년은 한국 근대사상청년·사회운동이 과학적 틀을 갖추고 격렬하게 진출하던 때였으며, 그 거점이 종로의 공평동·청진동과 견지동 쪽이었다.

종로는 네거리 길목을 틀어쥐고 있는 사범·치안 통치기구인 경성법원과 종로경찰서를 빼고서는 사상지리적 성격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임화에게 종로경찰서와 경성법원은 '적'이자 '분노'이며 동시에 '용기의 원천'이자 '시의 동력'이었다. 궁극적으로 임화에게 종로의 장소성은, 우정국로에서 기획·모의·조직한 청년·사회운동으로 종로경찰서와 경성법원을 돌파하고 마침내 종로 네거리로 진출하여 종로통을 점령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종로의 구체적인 장소성과 구체적인 사건들 속에서 사회운동가이자 프로시인 '임화'가 탄생하였다. 그래서 임화는 종로가 '고향'이라고 선언했다. 임화는 종로라는 장소를 신체화 하였으며, 그가 쓴 '종로 네거리' 계열의 시들은 신체화된 종로의 실제작경험적 지각과 감각의 기록이자 확장이며 연장이었다. 종로 네거리를 내 고향의 거리라고 할 만큼 종로는 임화의 사상적 정신적 근원이자 성장의 모태였다.



▶ 작품 소개

《 실연1 》

달 밝은 노들강에
철교 다리 붓잡고
야숙한 님 얼굴을
그려보더니
아서라 그만뒤라
막걸니를 마시고
자정 때 문안차에
코를 드르렁

— 동아일보 1924.

《 무엇 찾니 》

죽은듯한 밤은 땅과 하늘에 가만히 멈췄고
음울한 대기는 갈사락 컴컴한
저문 날 끝에서 땅 우를 해매는데
소리없이 자취를 감추고 나리는 가는 비는
고요히 졸고 있는 나뭇잎에
구슬같은 눈물을 지워
어둔 밤에 해매면서 우는
두견의 슬픈 눈물같이 울며 내려진다
남모르게 홀로 뛰는 영혼아
이 어둔 비오는 밤에도 쉬지 않고 날 뛰며

— 매일신보, 1926

《 네거리의 순이 》

네가 지금 간다면, 어디를 간단 말이나?
그러면, 내 사랑하는 젊은 동무,
너, 내 사랑하는 오직 하나뿐인 누이동생 순이,
너의 사랑하는 그 귀중한 사내,
근로하는 모든 여자의 연인……
그 청년인 용감한 사내가 어디서 온단 말이나?

눈바람 찬 불상한 도시 종로 복판에 순이야!
너와 나는 지나간 꽃 피는 봄에 사랑하는 한 어머니를
눈물 나는 가난 속에서 여의었지!
그리하여 너는 이 믿지 못할 얼굴 하얀 오빠를 염려하고,
오빠는 가냘픈 너를 근심하는,
서글프고 가난한 그날 속에서도,
순이야, 너는 마음을 맡길 믿음성 있는 이곳 청년을 가졌었고,
내 사랑하는 동무는……
청년의 연인 근로하는 여자 너를 가졌었다.

겨울날 친 눈보라가 유리창에 우는 아픈 그 시절,
기계소리에 밀려 흩어지는 우리들의 참새 너희들의 콧노래와
언 눈길을 걷는 발자국 소리와 더불어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청년과 너의 따뜻한 귓속 다정한 웃음으로
우리들의 청춘은 참말로 꽃다웠고,
언 밤이 주립보다도 쓰리게
가난한 청춘을 울리는 날,
어머니가 되어 우리를 따뜻한 품속에 안아주던 것은
오직 하나 거리에서 만나 거리에서 헤어지며,
골목 뒤에서 중얼대고 일터에서 충성되던
꺼질 줄 모르는 청춘의 정열 그것이였다.
얼마나 큰 즐거움이 우리의 머리 위에 빛났더냐?

그러나 이 가장 귀중한 너 나의 사이에서
한 청년은 대체 어디로 갔느냐?
어찌된 일이나?
순이야, 이것은……
너도 잘 알고 나도 잘 아는 멀쩡한 사실이 아니냐?
보아라! 어느 누가 참말로 도적놈이나?
이 눈물 나는 가난한 젊은 날이 가진
불상한 즐거움을 노리는 마음하고,
그 조그만 참말로 풍선보다 얇은 숨을 안 깨치려는 간지런 마음하고
말하여보아라, 이곳에 가득 찬 고마운 젊은이들아!

순이야, 누이야!
근로하는 청년, 용감한 사내의 여인아!
생각해보아라, 오늘은 네 귀중한 청년인 용감한 사내가
젊은 날을 부지런할 일에 보내던 그 여원 손가락으로
지금은 굳은 벽돌담에다 달력을 그리겠구나!
또 이거 봐라, 어서,
이 사내도 네 커다란 오빠를……
남은 것이라고는 때묻은 넥타이 하나뿐이 아니냐!
오오, 눈보라는 트럭처럼 길거리를 휘몰아간다.

자 좋다, 바로 종로 네거리가 예 아니냐!
어서 너와 나는 번개처럼 두 손을 잡고,
내일을 위하여 저 골목으로 들어가자,
네 사내를 위하여,
또 근로하는 모든 여자의 연인을 위하여……
이것이 너와 나의 행복된 청춘이 아니냐?

- 1929. 조선지광

《우리 오빠와 화로》

사랑하는 우리 오빠, 어저께 그만 그렇게 위하시던 오빠의 거북무늬 질화로가 깨어졌어요.
언제나 오빠가 우리들의 '피오닐' 조그만 기수라 부르는 영남이가
지구해 해가 비친 하루의 모든 시간을 담배의 독기 속에다
어린 몸을 잠그고 사온 그 거북무늬 화로가 깨어졌어요.

그리하여 지금은 화젧가락만이 불쌍한 영남이하구 저하구 처럼
꼭 우리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남매와 같이 외롭게 벽에 가 나란히 걸렸어요.

오빠...

저는요 저는요 잘 알았어요.

왜 그날 오빠가 우리 두 동생을 떠나 그리로 들어가신 그날 밤에
연거푸 말은 꺾련을 세 개씩이나 피우고 계셨는지,
저는요 잘 알았어요. 오빠

언제나 철없는 제가 오빠가 공장에서 돌아와서 고단한 저녁을 잡수실 때 오빠 몸에서
신문지 냄새가 난다고 하면

오빠는 파란 얼굴에 피곤한 웃음을 웃으시며

.....네 몸에선 누에 똥내가 나지 않니 -- 하시던 세상에 위대하고 용감한 우리 오빠가
왜 그 날만

말 한마디 없이 담배 연기로 방 속을 메워 버리시는 우리 우리 용감한 오빠의 마음을
저는 잘 알았어요.

천정을 향하여 기어 올라가는 외줄기 담배연기 속에서 --

오빠의 강철 가슴 속에 박힌 위대한 결정과 성스러운 각오를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하여 제가 영남이의 버선 하나도 채 못 기웠을 동안에

문지방을 때리는 쇳소리 마루를 밟는 거치른 구두소리와 함께 -- 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오빠는 불쌍한 저희 남매의 근심을 담배 연기에 싸두
고 가지 않으셨어요.

오빠! -- 그래서 저도 영남이도

오빠와 또 가장 용감한 오빠 친구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뒤집을 때

저는 제사기(製絲機)를 떠나서 백장에 일전짜리 봉통(封筒)에 손톱을 뿌려드리고

영남이도 담배 냄새 구렁을 내쫓겨 봉통 쫄무늬를 뚫는다.
지금 -- 만국지도같은 누더기 밑에서 코를 고고 있습니다.

오빠! -- 그러나 염려는 마세요.
저는 용감한 이 나라 청년인 우리 오빠와 핏줄을 같이한 계집애이고,
영남이도 오빠가 늘 칭찬하던 쇠같은 거북무늬 화로를 사온 오빠의 동생이 아니예요
그리고 참, 오빠, 아까 그 젊은 나머지 오빠의 친구들이 왔다 갔습니다.
눈물 나는 우리 오빠 동무의 소식을 전해주고 갔어요.
사랑스런 용감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화로는 깨어져도 화젓같은 깃대처럼 남지 안았어요
우리 오빠는 가셨어도 귀여운 '피오닐' 영남이가 있고
그리고 모-든 어린 '피오닐'의 따뜻한 누이 품 제 가슴이 아직도 더웁습니다.

그리고 오빠...
저뿐이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영남이뿐이, 굳세인 형님을 보낸 것이겠습니까
쉽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고마운 청년 오빠의 무수한 위대한 친구가 있고 오빠와 형님을 잃은, 수 없는
계집아이와 동생
저희들의 귀한 동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다음 일은 지금 섭섭한 분한 사건을 안고 있는 우리 동무 손에 싸워질
것입니다.

오빠 오늘밤을 새워 이만 장을 붙이면 사흘 뒤엔 새 솜옷이 오빠의 떨리는 몸에 입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누이동생과 아우는 건강히 오늘 날마다를 싸움에서 보냅니다.

영남이는 여태 잡니다. 밤이 늦었어요.

-- 누이 동생

- 조선헌광. 1929

《 다시 네거리에서 》

지금도 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맞고 보내며,
전차도 자동차도
이루 어디를 가고 어디서 오는지,
심히 분주하다.

네거리 북판엔 문명의 신식 기계가
붉고 푸른 예전 깃발 대신에
이리저리 고개를 돌린다.
스톱—주의—고
사람, 차, 동물이 똑 기에 배우듯 한다.
거리엔 이것밖에 변함이 없는가?

낮선 건물들이 보신각을 저 위에서 굽어본다.
옛날의 점잖은 간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다지도 몹시 바람은 거리를 씻어갔는가?
붉고 푸른 '네운'이 지렁이처럼,
지붕 위 벽돌담에 기고 있구나.

오오, 그리운 내 고향의 거리여! 여기는 종로 네거리,
나는 왔다, 멀리 낙산 밑 오막살이를 나와 오직
네가 네가 보고 싶은 마음에...
넓은 길이어, 단정한 집들이여!
높은 하늘 그 밑을 오고가는 허구한 내 행인들이여!
다 잘 있었는가?
오, 나는 이 가슴 그득 찬 반가움을 어찌 다 내토를 할까?
나는 손을 들어 몇 번을 인사했고 모든 것에게 웃어보였다.
변화로운 거리여! 내 고향 종로여!
웬일인가? 너는 죽었는가, 무르는 사람에게 팔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잊었는가?
나를! 일찍이 뛰는 가슴으로 너를 노래하던 사내를,

그리고 네 가슴이 메어지도록 이 길을 흘러간 청년들의 거센 물결을,
그때 내 불쌍한 순이는 이곳에 었더져 울었었다.
그리운 거리여 그 뒤로는! 누구 하나 네 위에서
청년을 빼앗긴 원한에 울지도 않고,
낮익은 행인은 하나도 지나지 않던가?

- 〈다시 네거리에서〉 일부

《 9월 12일-1945년, 또다시 네거리에서 》

조선 근로자의
위대한 수령의 연설이
유행가처럼 흘러나오는
마이크를 높이 달고

부끄러운
나의 생애의
쓰라린 기억이
포석(鋪石)마다 널린
서울 거리는
비에 젖어

아득한 산도
가차운 들창도
현기로워 바라볼 수 없는
종로 거리

저 사람의 이름 부르며
위대한 수령의 만세 부르며
개아미마냥 모여드는
천만의 사람

어데선가
외로이 죽은
나의 누이의 얼굴
찬 옥방(獄房)에 숨지운
그리운 동무의 모습
모두 다 살아오는 날
그 밑에 전사하리라
노래부르던 깃발
자꾸만 바라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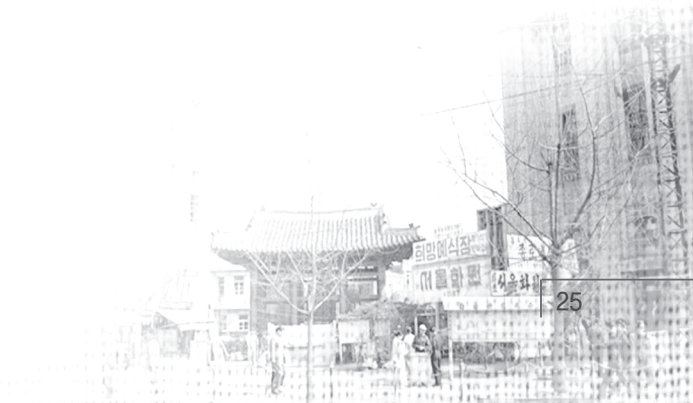
자랑도 재물도 없는
두 아이와
가난한 안해여

가을비 차거운
길가에
노래처럼
죽는 생애의
마지막을 그리워
눈물짓는
한 사람을 위하여

원컨대 용기이어라.

《 깃발을 내리자 》

노름꾼과 강도를
잡든 손이
위대한 혁명가의
소매를 쥐려는
욕된 하늘에
무슨 깃발이



날리고 있느냐

동포여!

일제히

깃발을 내리자

가난한 동포의

주머니를 노리는

외국 상관(商館)의

늪은 종들이

광목(廣木)과 통조림의

밀매를 의논하는

폐(廢) 왕궁의

상표를 위하여

우리의 머리 위에

국기를 날릴

필요가 없다

동포여

일제히

깃발을 내리자

살인의 자유와

약탈의 신성이

주야로 방송되는

남부조선

더러운 하늘에

무슨 깃발이

날리고 있느냐

동포여

일제히

깃발을 내리자

▶ 작품 목록

시

무엇 찾니. 매일신보. 1926.
 향수. 매일신보. 1926.
 조상. 조선일보. 1927.
 혼광의 아들. 조선일보. 1927.
 화가의 시. 조선일보. 1927.
 젊은 수라의 편지. 조선지광. 1928.
 네거리 순이. 조선지광. 1929.
 우리 오빠와 화로. 조선지광. 1929
 어머니!. 조선지광. 1929.
 병감에서 죽은 녀석. 무산자. 1929.
 봄이 오는구나. 조선 문예. 1929.
 다 없어졌는가. 조선지광. 1929.
 제비. 조선지광. 1930.
 오늘 밤 아버지는 파랑 이불을 덮고. 제일선. 1933.
 세월. 문학창조. 1934.
 낮. 삼천리. 1935
 최후의 염원. 조광. 1935.
 안개. 조광. 1935
 다시 네거리에서. 조선중앙일보. 1935.
 버러지. 신동아. 1935.
 가을바람. 조광. 1936.
 현해탄. 중앙. 1936.
 달밤. 신동아. 1936.
 적. 중앙. 1936.

지상의 시. 풍림. 1937.
너 하나 때문에. 풍림. 1937.
내 청춘에 바치노라. 동아일보. 1937.
한잔 포도주를. 청색지. 1938.
한여름 밤의 꿈. 조선문학. 1939.
헌시. 조선인민일보. 1945.
인민의 소리. 예술신보. 1946.
3월 1일이 온다. 자유신문. 1946.
손을 들자. 조선인민일보. 1946.
서울. 해방일보. 1950.

비평, 수필 잡문, 소설

근대 문학상에 나타난 연애. 매일신보. 1926.
잡지문학의 해설. 매일신보. 1926.
위기에 임한 조선영화계. 매일신보. 1926.
정신분석학을 기초로 한 계급문학의 비판. 조선일보. 1926.
무산계급을 주제로 한 세계적 작가와 작품. 조선일보. 1926.
부패한 도시. 조선일보. 1927.
분화와 전개-목적의식 문예론의 서론적 도입. 조선일보. 1927.
용을 이한 문학. 조선지광. 1928.
토월회 제 57회 공연을 보고. 조선지광. 1928.
영화의 사평. 조선지광. 1929.
표현주의 예술. 조선문예. 1929.
시인이여! 일보 전진하자. 조선지광. 1930.
소위 해외문학파의 정체와 임무. 조선지광. 1932.
수운주의 문학 비판. 신계단. 1933.
중국에 있어서의 장개석 지배의 새로운 동요. 신계단. 1933.

문단인의 자기고백. 동아일보. 1933.
 비평의 객관성 문제. 조선문학. 1933
 현대의 문학에 관한 단상. 형상. 1934.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 조선일보. 1934.
 언어와 문학-특히 민족어와의 관계에 대하여. 예술. 1934.
 혁명가로서의 두웅. 조광. 1935.
 조선문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신동아. 1935.
 시의 일반개념. 삼천리. 1936.
 금년에 하고 싶은 문학적 활동기. 삼천리. 1936.
 말의 빈곤. 조선문학. 1936.
 작가의 눈과 문학의 세계. 조선문학. 1937.
 주체의 재건과 문학의 세계. 동아일보. 1937.
 내 애인의 면영. 조광. 1938.
 작가 한설야론. 동아일보. 1938.
 작가와 문학과 잉여의 세계. 비판. 1938
 집지 문화론. 비판. 1938.
 작가 기질론. 청색지. 1938.
 사실의 재인식. 동아일보. 1938.
 전망의 윤리. 조선일보. 1940.
 어떤 청년의 참회. 문장. 1940.
 농촌과 문화. 조강. 1941.
 조선영화론. 춘추. 1941.
 영화의 극성과 기록성. 춘추. 1942.
 저선문학의 지향. 예술. 1946.
 비평의 예술. 독립신보. 1946.
 인민항쟁과 문학운동. 문학. 1947.
 해방 문학상에 대한 결정서. 문학. 1947.
 크레믈린의 붉은 별. 조선문학. 1952.

▶ 관련 자료

카프 (KAPF)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통칭 카프(KAPF)는 1925년 8월에 결성, 1935년 5월 20일에 해체된 사회주의 문학단체이다. 계급의식에 입각한 조직적인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계급혁명 운동을 목적으로 삼았다. 기관지 《문예운동》, 《예술운동》 발간, 창작활동을 했다.

KAPF는 에스페란토식 표기의 머리글자를 따서 약칭한 것이다. 1919년 3·1운동이후 일제의 식민지정책이 문화정치로 전환하고, 러시아혁명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사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프롤레타리아 문예운동단체이자 한국최초의 전국적인 문학예술가 조직이다.

1922년 9월 이호, 이적효, 김두수, 최승일, 박용대, 김영팔, 심대섭, 송영, 김홍파 등이 조직한 염군사와 1923년 박영희, 안석영, 김형원, 이익상, 김기진, 김복진 등이 조직한 파스쿨라(PASKYULA)가 결합하여 1925년 8월 결성되었다.

‘예술운동의 불세비키화’를 주장하며 예술운동 전 부문에 걸쳐 확대하여 전문적·기술적 전국동맹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재조직 중지, 검거사건, 역량부족 등으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1927년에 발간한 기관지 《예술운동》도 폐간되었고, 《전선》, 《집단》 등을 발간하려 했으나 원고 압수, 검열 등으로 발행하지 못하였다.

1931년 8~10월에는 조선공산당협의회사건과 연루된 세칭 ‘카프 1차사건’을 겪었다. 도쿄에서 발행된 《무산자》의 국내 배포와 영화 《지하촌(地下村)》 사건으로 김남천 등 11명의 동맹원이 체포되어 카프의 조직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이다.

1933년부터 ‘신건설사 사건’으로 이기영, 한설야, 윤기정, 송영 등 23명이 체포되는 2차 검거사건을 겪으면서 급속도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조선문학기동맹

해방 직후 조직된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이 통합을 결의하고 1946년 2월 9일 조선문학자대회를 통해 결성된 좌익문학 단체이다.

해방 공간에서 좌익문단 조직의 분열은 사회주의 정치 노선의 통일전선을 표방했던 조선공산당의 문화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공산당은 1945년 11월 23일 장안파와 합류하여 정치운동의 단일전선을 구축한 후 문화운동에 야기된 분열적인 조직을 조정하려 하였다. 조선공산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간파한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에서는 당의 과감한 투쟁노선을 적극 지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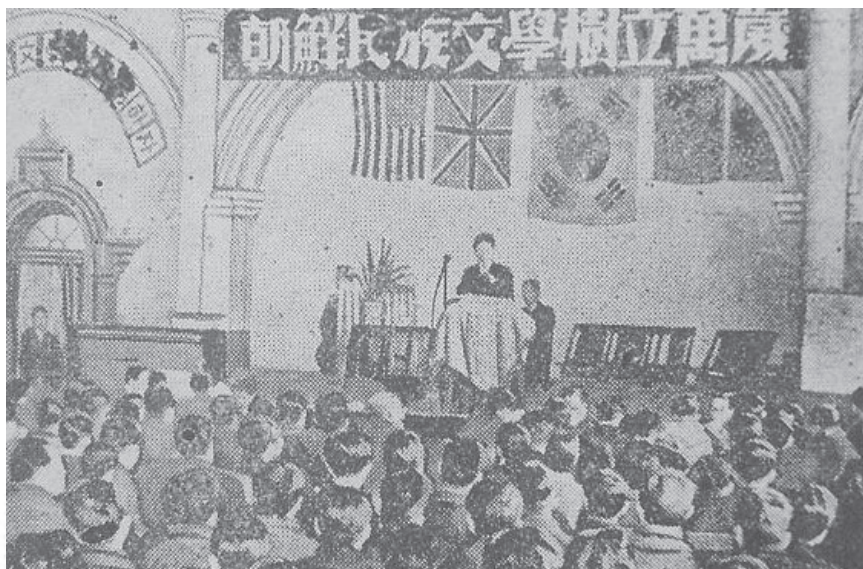
그리고 일체의 비혁명적 요소를 배제하고 계급혁명을 위해서는 전투적 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선공산당 당조직과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연계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는 자신들이 내세운 민족문화건설이라는 목표가 모든 문화예술인의 지지를 얻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문화운동이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과격한 투쟁의식이나 계급관념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조직의 전선적 확대와 함께 내부적 단결을 확고히 하는 것이 옳은 방법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조선공산당은 임화 중심의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의 운동노선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에 당의 승인을 내려주면서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도 이에 합류할 것을 요구하였다. 1945년 12월 3일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의 임화, 김남천, 이태준 등이 주동이 되어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송영, 이기영, 한설야가 회동하는 합동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임화는 공산주의의 이념 아래 문화운동의 통일전선의 결성이 시급한 요건임을 강조하였고, 1945년 12월 6일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와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에 소속되어 있던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의 발전적인 통합을 결의하게 되었다.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은 1945년 12월 13일 '조선문학동맹'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임화의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가 문화예술운동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자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에서는 그들의 불만을 억제하면서 통합된 문화운동의 방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새로운 통합조직체인 '조선문학동맹'에서 점차 소외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던 미, 영, 소 3국의 외상회의에서는 제2차 대전 후의 세계문제를 협의하면서 한국에 대한 연합국의 신탁통치의 구체적 실시 방안을 협의하고 있었다. 미, 영, 소가 시정권자가 되어 5년간의 신탁통치를 통해 하나의 독립국가로서 한국을 만든다는 신탁통치의 결의내용이 국내에 알려진 것은 이 해의 막바지에 가까운 12월 28일경이었다. 독립정부의 수립을 갈망해온 민족진영의 인사들이 격렬한 반탁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동안, 애당초 반탁의 의사를 제시했던 조선공산당은 박헌영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갑자기 찬탁으로 방향을 돌렸다. 1946년 연 초부터 반탁, 찬탁의 논전이 좌우세력의 투쟁으로 이어지는 동안, 문단에서도 '조선문학동맹'은 찬탁의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노선과 이념의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선문학가동맹이 1946년 2월 정식 출범을 선언하며 개최한 전국문학자대회 장면〉

▶ 기타 코스

한무숙 문학관

한무숙 문학관은 소설가 향정(香庭) 한무숙(韓戊淑) 선생이 1953년부터 작고할 때까지 40년 동안 살면서 온 정성을 다하여 가꾸고 다듬은 전통 한옥이다.

서울의 유서 깊은 성균관 부근에 자리 잡은 이 기와집은 20세기 초 장안의 대목 심목수라는 분이 지었다고 한다. 바로 위에 있던 앵두밭 자리에 지금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심목수가 역시 지었던 뒷집도 헐려 원룸아파트가 되었다. 한옥들이 하나 둘 사라지며 옛 향기가 사라져가는 동네에 이 집은 오아시스로 남아 있다.

한무숙 문학관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치밀한 심리묘사, 정확한 언어구사, 한국인으로 서의 정체성과 역사관, 세계성으로 한국 문학사에 공헌한 바 크다. 이 문학관은 한무숙 문학의 대부분의 산실이었다.

이 문학관은 향정과 그 부군 백농 김진흥 선생 내외분이 창작 활동을 하며 반세기를 사신 체취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지금은 작가의 장남과 그의 아내가 이 집에 살면서 향정·백농 두 분의 삶을 기리고 그분들의 향기를 전하려 노력하고 있다.



- 한무숙(1918~1993)



한무숙의 부친은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으로서 청빈 근면한 관료였고, 모친은 전형적인 서울 양반가의 부인이었다. 한무숙은 전통적인 사대부가의 부인을 잘 묘사하였는데, 이런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남들보다 몸이 약했던 한무숙은 병으로 근 반년이나 늦게 소학교에 입학하였고, 이후에도 종종 휴학을 해야 했다. 몸이 약한 중에도 한무숙의 재능은 빛이 났다. 그녀는 1926년 초등학교 2학년 때 베를린 세계 만국 아동그림전시회에 입상할 정도로 그림에 뛰어난 자질을 보였다. 이런 미술 실력은 1936년에 부산 고등 여학교를 들어간 후 본격화된다. 어머니와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김말봉 선생의 제안으로 선생의 『동아일보』 연재소설 『밀림』의 삽화를 242회에 걸쳐 그릴 정도로 재능이 있었다.

그러나 졸업반인 5학년 때, 폐결핵으로 이후 약 4년간의 요양생활을 시작하면서 미술학도의 꿈은 접어야 했다.

한무숙은 거둬드는 병으로 인해 누워 지내는 동안 독서에 열중하게 된다. 당시 그의 집은 지식인인 아버지와 문학청년인 오빠 덕에 집안은 많은 장서로 유명하였다.

한무숙은 병세가 호전되자 1940년에 김진홍과 결혼한다. 한무숙의 시가는 매월당 김시

습의 대종손 집안이었다. 남편은 과묵했으며, 시어머니의 병수발 때문에 신접살림을 차리지도 못했다.

한무숙은 훗날 “묵은 집안의 인습의 무거움과 낙탁한 대가의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와 상봉하술의 생계의 어려움과 거듭되는 불운이 변질시켜 버린 잔인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 고달픈 신역의 나날”이라고 이 시기를 회상한다.

한무숙은 어느 날 찢어진 잡지에서 ‘장편소설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한다. 시아버님과 남편, 남편의 내종 누님 내외, 그리고 두 자식까지 와 있어 그들의 뒷수발을 해야 했던 시기였다. 더욱이 시아버님께 글을 쓰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김치가 된 몸으로 한 밤이 되어서야 간신히 글로 옮길 수 있었던 한무숙은 앓을 힘도 없어서 모로 누워 종이를 벽에 대고 연필로 써내려갔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매달린 끝에 『등불 드는 여인』(1942)이 탄생하였다.

하지만 이런 성과를 시덕 식구들에게 알릴 수는 없었다. 심지어 수상식에도 불참하였고, 당선 사실은 남편만 아는 비밀로 묻어두었다.

이후 1943년 회곡 「마음」이 조선연극회 현상 모집에 당선되고, 이듬해 회곡 「서리꽃」이 조선 연극회 현상 모집에 연이어 당선되었지만, 사회적으로나 문단 내에서 작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948년 국제신보사 장편 소설 모집에 『역사는 흐른다』가 당선됨으로써 문인의 길에堂堂하게 들어서게 되었다.

－ 작품

회곡 마음(1943)

역사는 흐른다(1948)

감정이 있는 심연(1957)

유수암(1963)

석류나무집 이야기(1964)

생인손(1987)

회곡 서리꽃(1944)

월훈(1956)

빛의 계단(1960)

축제와 운명의 장소(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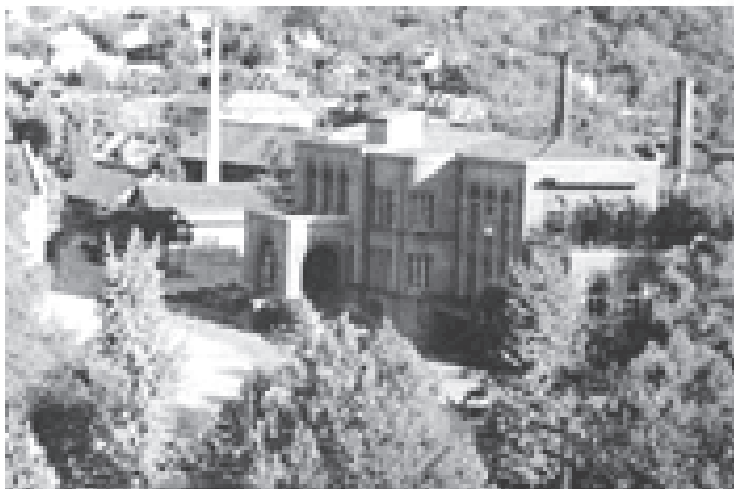
우리 사이 모든 것이(1978)

예술가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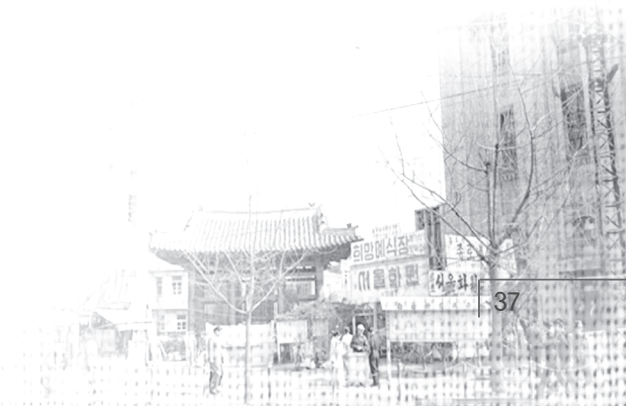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은 조선총독부 건축 기수로 일한 박길룡이 설계했고 1931년 10월 10일 준공되었다.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는 엄격함과 권위를 강조한다. 아케이드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일본 동경제대 건물과 유사한 모양이다.

경성제국대학교 본관으로 쓰이다가 1946년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령 공포로 서울대학교 본관으로 사용 되었다. 이후 1975년 서울대 동송동 캠퍼스가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며 대한주택공사에 매각 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양도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의 본관으로 사용되다 2010년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예술가의 집으로 바뀌었다. 예술가의집은 예술가의 창작을 지원하고 예술가와 예술가, 예술가와 시민 간 소통을 지원하는 매개형 열린 공간이다.



〈일제 강점기 때 예술가의 집〉



참고문헌

- 김윤식, 『임화-그들의 생애와 문학』, 한길사, 2008.
- 임 화, 『임화 해협의 로맨티시즘』, 아티초크, 2016.
- 신경림, 『시인을 찾아서』, 우리교육, 2002.
- 이 훈, 『임화의 문학론 연구』, 제이앤씨, 2009.
- 방민호, 『서울문학기행』, 아르테, 2017.
- 장석주, 『나는 문학이다』, 나무이야기, 2009.
- 김수이(2010), 임화의 시비평에 나타난 해석과 평가의 시차-김기림, 이상, 백석, 오장환의 시에 대한 임화의 비평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31), 59-90.
- 김학중(2019), 임화 시 연구-임화 시에 나타난 비역사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준희(2002), 임화 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진(2012), 임화 초기시 연구-변모 양상 및 중후기 시와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혁응(2007), 임화 시의 비유적 특성과 그 계승, 한국문학이론과 비평(11), 131-154.
- 염민애(2018), 한무숙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의식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해설자 소개

해설자 : 전해경



약력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교육심리)
- 경기도 어르신 독서도우미 과정 강사
- 독서상담사, 독서논술지도사 과정 강사
- 『초등학생 독서논술1,2.』 (가림출판사, 2007, 공저)
- 『다중지능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가림출판사, 2008, 공저)
- 『독서지도백과』 (교보문고, 2010, 공저)
- 교보문고 독서코칭 전문 강사
-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 자녀독서교육 강의
- 서울미래유산 해설
- (김소월의 왕십리, 붉은 벽돌마을 성수동, 유현목 감독의 영화 '수학여행', 서초동 예술의 전당, 구로공단의 어제와 오늘, 경춘선 철길과 태능 등)
- (주)신한카드 '아름인 도서관 북멘토 프로그램' 강사
- 2018년 디지털 인문도사:순성의 복원, 한양도성 주제 강의
- 2004-현재 책마루 독서교육연구회 부회장
- 현재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도시문화지도사

▶ 2019 서울문학기행 사업개요

사업목적

한국의 대표도시 서울과 서울사람의 정체성을 1920~1960년대 출간된 문학작품 현장 탐방을 통해 탐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학향유의 기회를 제공

추진방향

서울과 서울사람의 삶을 묘사한 작품 속 현장과 작가들의 체취를 작가, 문학평론가, 전문 해설가의 설명을 통해 찾아보는 본격 문학탐방 프로그램을 추구

사업운영

- 사업기간 : '19. 6.12 ~ 11.30(총 16회 운영)
- 참가대상 : 서울시민 640여명 (회당 40명)
- 운영 : 총 16회 중 평일(수 10시) 8회, 주말(토 14시) 8회로 분리 실시해 직장인과 학생 참여 유도, 혹서기인 8월 1회는 야간(18시) 기행
- 주요내용
 - 지역별 서울문학유적지 탐방
 - 서울소재 문학관 및 집터 탐방
 - 문학인 묘소 및 시비 탐방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news.seoul.go.kr/culture)에서 선착순 마감
 - 문의 : 02-772-9069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www.suci.kr



사단법인 서울도시문화연구원
Seoul Urban Culture Institute association, inc.

설립목적

서울시의 문화예술 발전 정책에 부응하며, 서울 고유의 도시문화 창달과 바람직한 미래 서울문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설립취지를 달성하고자 평생교육,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헌을 통해 서울의 문화정체성 정립에 노력. 특히 서울 고향 만들기, 서울역사문화학교 운영, 서울도시문화 지도사 양성 같은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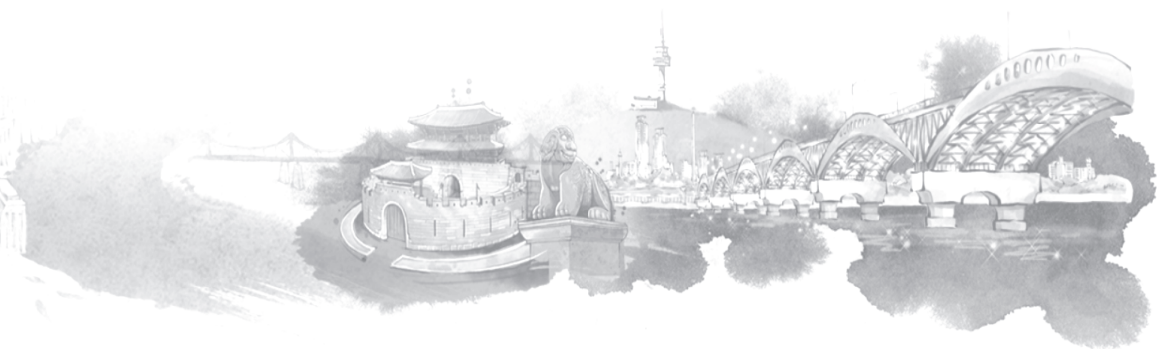
설립경위

2016년 4월29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음.

실적

- 2016년 7월 25일~8월 31일까지 제1회 서울도시문화지도사 1,2,3급을 모집, 9월 19일 1급, 2급, 3급 등 각급 지도사 50명을 배출.
- 호현당 선비체험 캠프(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016년 7월~8월 3회, 서울시내 초등학교생 80여명 대상 운영)

- 이야기가 있는 한양도성 야행(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2016년 9월~10월 2회, 서울시민 60여명 대상 답사)
 - 종로역사인물 열전(종로구청, 2016년 10월~12월, 10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행사)
 - 서울골목탐험대 운영(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7년 5월~10월 진행 중 5개 조 25명 운영)
 - 언론인 역사생태탐방(삼성언론재단, 2017년 5월, 현역 언론인 4개조 70명 운영)
 - 2017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7년 5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25회 탐방 1000여명 참가)
 - 2018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8년 5월~12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1400여명 참가)
 - ‘디지털 인문도시 프로젝트: 순성의 복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이 2018년부터 8월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 20개 인문학 강좌 주관)
 - 2019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9년 4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진행 중)
- 참가신청 : 서울미래유산 <http://futureheritage.seoul.go.kr>





2019 서울 문학 여행

발행처 :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28-3
02) 772-9069, www.suci.kr

발행 및 편집인 : 서울도시문화연구원
원장 노주석